

청년 니트, 새로운 글로벌 청년고용 지표 가능성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

일국의 청년은 곧 그 나라의 미래이다. 따라서 각국들은 자국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나라들은 과거와 구분되는 청년층의 특성이나 문제점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나라마다 모습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일국 내에서도 과거와 차원이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많은 국가들은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근 들어 청년 니트(NEET)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시장에 국한하여 본다면 전통적으로 청년층 문제는 주로 청년실업의 문제였다. 실제로 청년 실업률은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는다.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정책당국의 주요 과제이다. 특히 청년실업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은 60%에 육박하고 있고 독일을 제외한 많은 유럽국가들의 청년 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넘으며, EU의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는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만으로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영국은 1980년대 후반 복지급여제도 변경에 따라 16~18세 청년 대부분이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청년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

표로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니트란 ‘일을 하지도 않으며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후 청년 니트의 개념은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으며, 일본과 한국에서도 정의를 다소 달리하면서 주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청년 니트를 15~34세로 폭넓게 정의하여 자국 청년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 붕괴로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 저성장이 지속되자 국민들의 의욕저하와 무기력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청년들이 정식 사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잠깐씩 일하거나 일하지 않는 현상, 즉 청년 프리터(freeter: free arbeiter) 문제가 부상하게 되었다. 이후 일하지 않는 청년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청년 니트의 개념이 일본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한국은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는 데도 청년 실업률은 별로 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실업률 지표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여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청년 니트를 정의하여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측정 한 결과, 다른 나라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청년 니트의 규모가 매우 크며, 특히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구직 니트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 100만 명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구직 니트의 지속적인 증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상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저소득 가구의 자녀일수록 니트로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청년의 실업이 주요 문제였던 유럽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청년실업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기존 노동시장 지표들의 유용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등장하였다. 그러자 EU 집행위원회의 고용위원회(EMCO)는 청년 니트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정의와 방법에 합의하였고 회원국들의 청년 니트를 측정하였다. 15~24세로 정의할 경우 EU의 청년 니트는 750만 명이며, 이는 청년 인구의 12.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29세의 경우 이러한 니

트비율은 15.4%로 높아진다. 현재 EU는 이러한 니트 지표를 실업률에 대한 추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 니트라는 개념을 통해 청년층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파악할 경우 기존의 지표들은 알 수 없었던 중요한 특징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국가와 시기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기존 지표들과 다른 시각에서 알려준다. 청년 문제는 많은 나라들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프랑스에서 청년의 극렬한 시위가 있었으며, 영국과 스페인에서의 청년 시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극우운동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니트의 하부 집단으로 볼 수 있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한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니트의 급격한 증가는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 니트의 문제가 향후 국가 생산성 저하로 연결되어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당장의 현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바야흐로 청년 니트가 새로운 글로벌 청년고용 지표로 부각하고 있는 듯하다. **KLI**